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과 성격 강점의 관계

허 연 주 성 유 리 박 광 배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충동성이 높고 반복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진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충동성은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격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심리학 측면에서 정신병리는 심리적 강점의 부재로 인한 문제이므로, 성격강점을 육성하는 것을 정신병리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과 성격 강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긍정적 성품의 관점에서 성격장애자의 부적응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3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지닌 105명을 선별하여 성격강점과 충동성을 측정 후, 성격강점을 약, 중, 강 수준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충동성을 일원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지닌 일반인은 지혜 및 지식, 용기, 절제, 정의 상위덕목 수준에 따라 충동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긍정적 성품을 지닌 집단일수록 약한 충동성을 보였다. 또한, 네 가지 상위덕목 중 가장 영향력이 강점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기 상위덕목이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용기 상위덕목의 하위 강점에서는 끈기 강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범법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 충동성, 성격강점, 긍정심리학, 재소자

[†] 교신저자 : 이민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51-5781, E-mail: rmk92@chol.com

최근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한 식품 회사의 광고를 2014년 12월 베스트광고로 선정하였다. 광고는 “‘다녀왔습니다.’가 그저 고마운 요즘입니다.’라는 카피로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온 국민이 범죄피해자의 대상이 되었다는 불안감으로 나라가 들썩인다는 현실은 광고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다. 통계청(2014)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1997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여성들은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68~70%에 달하였다. 이런 위협은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나 무술 사범의 과도한 체벌, 그리고 살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은 반사회성 성향이다.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검사에서 반사회성을 측정하는 4번(Psychopathic Deviate, Pd) 척도는 가정불화와 권위불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침착성이 높고 사회적, 내적 소외감을 느끼는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며 남들과 대립을 잘하고 비아냥거리거나 냉소적이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서현, 채규만, 2011).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행동을 반복하고 충동적이며 호전적이어서 육체적인 싸움을 자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배우자나 자녀를 구타하기도 한다. 이들은 죄책감이 결여되어 유사한 불법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주변 사람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장애는 대가족 출신의 남자,

도시의 빈민층, 약물 남용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흔하며 아동기에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를 겪었거나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경험을 지닌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3).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은 성인기 범죄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Cordella, & Siegel, 1996) 강도, 강간,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재소자들의 반사회성 성향이 더 높다는 연구(이수정, 서진화, 이윤희, 2000) 등을 통해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 없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반사회적 행위를 쉽게 표출하기 때문이다(정대기, 2007).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군집 B에 속해 있는데 같은 군집의 경계선 성격장애나(Coid, Yand, & Roberts, 2006)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와도 공병률(comorbidity)이 높다(이규환, 2009).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의 충동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충동성이나 우울의 낮은 자제력과 공병하면서(박소은, 2009) 타인에 대한 공격성 외에 자살과 같은 자해로 나타나기도 하고(이규환, 이봉건, 2012) 다른 성격장애보다 더 심각한 음주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신행우, 1999).

하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우울증은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허감이나 지루함이 특징적이라는 부분에서(이규환, 2009)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은 공격욕구 통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행동통제 결함, 일을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무계획 충동성,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이 앞서는 운동 활동 충동성, 흥분하면 진정하기 어렵고 쉽게 화를 내는 정서적 통제에 결함이 있는 충동성과 모두 관련이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정서조절의 결함과 관련된 충동성만이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성격장애에 따른 충동성도 차이가 있다(임지영, 황순택, 2011). 일반인에게도 충동성은 범법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경(199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충동성을 비교하였는데, 범법행위를 경험한 집단의 충동성이 더 높았다. 또한, 재소자 중 폭력범, 강간범과 같은 강력범죄자가 절도범에 비해 높은 충동성을 보고하였다(조은경, 1997). 이러한 충동성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다른 대표적인 특징인 공격성과 맞물리면,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문지마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장은영, 전소영, 이수정, 2014), 높은 정신병질과 맞물려 연쇄살인범처럼 반복해서 재범을 일으키기도 한다(서진환, 이수정, 2000; Gretton, McBride, Hare, O'Shaughnessy, & Kumka, 2001).

Gray(1981)는 ‘범죄자들은 처벌자극에 대해서는 조건화가 안 되지만, 보상자극에 대해서는 정상인들과 다름없는 조건화 능력을 보여 주며 이는 강한 충동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현(2005)은 정신병질자의 증상은 정서통제의 결함, 충동성, 소아적인 행위의 지속, 경험을 살리는 능력의 결여, 장래에 대한 배려 결여, 자기 신뢰의 결여, 집단에의 적응불안, 지루함의 인내능력 결여, 무책임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범죄행위와의 관련을 지적하고 있다(김중수, 2005, 재인용). 이처럼 충동성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외현화 행동과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성격장애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며(권석만, 2013) 성격문제는 한 개인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기존의 치료는 효과가 작은 편이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개입법은 주로 심리적 부적응 혹은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을 붙인다 하더라도 깨지기 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발병 이후의 처치로 병전 수준의 기능을 복구시키기는 어렵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 여러 국가에서 정신장애의 예방활동에 엄청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의 유병률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일부 장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배정미, 2006; 오수성, 2007; Samargia, Saewyc, & Elliott, 2006, 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개입법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Seligman, Reivich, Jaycox와 Gillham(1995)은 낙관성, 용서, 감사와 같은 강점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강점이 정신장애의 발병을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정신병리의 본질이 부적응 증상의 출현보다는 심리적 강점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Peterson, Seligman, 2004). 정신병리와 심리적 강점은 상반되는 개념이므로, 작동조건 형성과정에서 약화시키고자 하는 행동과 상반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역조건 형성을 통한다면(하우동, 1995) 강점을 강화시킬수록 정신장애는 약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격장애가 성격의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이며 성격 강점과

표 1. 6개 핵심덕목과 24개 성격강점(김지영, 2014)

덕목	성격강점	정의
지혜 및 지식	창의성	새롭고 참신하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독창적 능력
	호기심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매혹되어 자세하게 탐색하고 추구하는 태도
	개방성	어떤 주제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능력
	학구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려는 동기와 학구적 태도
인애	지혜	상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어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
	사랑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며 깊이 있는 애정을 주고받는 능력
용기	이타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친절한 행동을 하려는 선한 동기와 실천 능력
	정서지능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잘 포착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
	용감성	위험, 도전, 난관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능력
	진실성	자신을 거짓 없이 드러내고 솔직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
절제	끈기	근면하게 노력하여 시작한 일을 완성하고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계획된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
	활력	어떤 일이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겸손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겸허한 태도
	신중성	조심스럽게 행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협이나 후회할 일을 초래하지 않는 능력
정의	용서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며 앙심을 품지 않는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
	자기조절	자신의 다양한 충동, 욕구, 감정,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공정성	편향된 개인적 감정의 개입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태도
초월	시민의식	사회나 조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자세
	리더십	집단 활동을 조직화하고 효과적으로 지휘하며 관리하는 능력
	감사	긍정적인 면을 잘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
	낙관성	최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심미안	세상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체감하는 능력
영성	유머감각	웃고 장난치는 일을 좋아하며 타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능력
	영성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일관성 있는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태도

덕성이 성격의 적응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김지영, 2014), 강점을 육성시킴으로써 증상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이 정신장애를 예방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Seligman, Reivich, Jaycox, & Gillham, 1995).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으나 긍정심리학의 출현 이전에는 강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정신장애의 진단처럼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긍정적 성품과 덕성에 대한 분류체계와 측정방법의 개발을 위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덕목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역사와 문화에 걸쳐 6개의 핵심덕목과 각 핵심덕목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성된 24개의 하위강점을 선정하여 VIA 분류체계(Value-in-Ac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를 구축하였다. 6개의 핵심덕목에는 지혜 및 지식(wisdom and knowledge), 인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핵심덕목은 각각 3~5개의 하위강점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지혜 및 지식 덕목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강점들로서, 삶에서의 지혜로운 판단과 지적인 성취를 돕는다. 두 번째 인애 덕목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강점들로서, 따뜻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심화하는데 기여한다. 세 번째 용기 덕목은 내면적, 외부적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강렬한 의지와 관련된 성격적 특성으로서, 과제 완수와 목표 성취에 이바지한다. 네 번째 절제 덕목

은 지나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용적 강점으로서, 절제를 통해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 정의 덕목은 효과적인 집단 활동에 기여하는 사회적 강점으로서, 개인과 집단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초월 덕목은 인생과 세상을 대하는 초월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미와 희망을 갖도록 돕는다(Peterson, & Seligman, 2004, 김지영, 2014, 재인용).

여러 연구에서 강점을 함양하는 것이 행복 증진과 부적응 문제의 감소(Park, & Peterson, 2009), 우울증의 호전과 재발방지(Seligman, Rashid, & Parks, 2006), 물질남용 감소(Correira, Benson, Carey, 2005), 행복수준 증가(Lyubomirsky, 2008)와 같은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김지영(2011)은 성격장애 성향을 약점으로 보고 성격 강점과의 관계를 본 연구를 실시하여 6가지 덕목과 24가지 하위강점의 상관을 밝히며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은 끈기와 진실성, 관대성 및 겸손과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성격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됐지만 성격강점과 관련된 연구는 성격강점과 성격장애의 전체적인 관계를 밝히거나 삶의 만족도나 행복과 같이 웰빙(well-being)과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위협한 외현화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도 그를 무시하므로(권석만, 2013),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성격강점과의 관계를 단순히 전체적인 측면만을 비교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핵심덕

목과 하위성격강점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성격장애성향은 치료 효과가 작은 편이고 외현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충동성이라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바,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격강점에 의해 보고된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봄으로써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외현화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소재한 4개의 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46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가운데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430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참가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보면 평균 연령은 21.8세(범위: 18~41세)이고, 남성이 173명(40.2%), 여성이 257명(59.8%)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7명(10.9%), 2학년 145명(33.7%), 3학년 179명(41.6%), 4학년 30명(7.0%), 대학원 22명(5.1%), 기타 7명(1.6%)이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진단기준이 없는 경향성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구별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상위 25%를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의 평균연령은 21.89세(범위: 19~27세)이고 성별은 남성 54명(51.4%), 여성 51명(48.6%)으로 분포되어 있다.

측정 도구

성격강점 검사(CST)

개인의 긍정적 성품과 성격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안한 VIA 분류체계에 근거해, 권석만, 유영진, 임영진, 김지영(2010)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성격강점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 응답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선회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5개의 척도는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 표준화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4~.92의 범위였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2~.87이었다. 또한, 각 하위척도와 밀접히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살펴보았는데, 창의성과 끈기, 신중성, 심미안, 감사, 유머감각 및 영성이 .70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진실성(.35)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도 모두 .4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강점검사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으며, 지혜 및 지식 덕목은 .93, 인애는 .90, 용기는 .92, 절제는 .91, 정의는 .85, 초월은 .93이었다. 하위강점의 내적 일치도는 창의성 .83, 호기심 .77, 개방성 .80, 학구열 .80, 지혜 .84, 사랑 .73, 이타성 .76, 정서지능 .83, 용감성 .81, 진실성 .63, 끈기 .81, 활력 .78, 용서 .81, 겸손 .82, 신중성 .75, 자기조절 .71, 공정성 .60, 시민의식 .69, 리더십 .84,

감사 .86, 낙관성 .82, 심미안 .83, 유머감각 .86, 영성 .87로 나타났다.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K-PDT)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한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Korean Personality Disorder Test: K-PD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산출된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자기보고형 질문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성격장애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부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119문항 중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는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성격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장애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68이었다.

Barratt 충동성 검사-11(BIS)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ratt(1959)이 제작한 척도를 이현수(1992)가 타당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개의 하위 척도(인지 충동성 6문항, 운동 활동 충동성 8문항, 무계획성 9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인지 충동성은 문제를 해결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응답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운동 활동 충동성은 즉흥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측정하며, 무계획 충동성은 일을 착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9로 나타났다.

절차

먼저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이 없는 경향성 척도이므로 노은정, 황순택, 구형모, 이숙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반사회성 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였다. 참가자가 응답한 척도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을 갖는 T점수로 환산한 후, 환산점수가 상위 25%에 해당되는 참가자를 반사회성 성향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선별된 반사회성 성향자의 강점점수에 따라 약(하위 1/3), 중(중간 1/3), 강(상위 1/3) 집단으로 재분류하였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지닌 일반인의 성격강점별 충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덕목과 하위강점을 재확인하기 위해 핵심덕목과 하위강점, 충동성 간의 상관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사회통계학적 변인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가 응답한 여섯 핵심덕목과 스물넷 하위강점 점수를 기반으로 각 강/중/약 강점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때 각 핵심덕목과 성격강점의 강/중/약 강점집단은 한 집단에서 최소 23명 최대 47명을 포함하였다. 세부적인 각 집단 간 사례수와 성별 분포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핵심덕목과

표 2. 핵심덕목 집단별 충동성 변량분석 결과

변인	약	중	강	χ^2
	전체N (집단 내 남자%)	전체N (집단 내 남자%)	전체N (집단 내 남자%)	
지혜 및 지식	35(57.1)	33(57.6)	37(40.5)	2.71
창의성	30(63.3)	35(48.6)	40(45.0)	2.48
호기심	33(57.6)	28(60.7)	44(40.9)	3.42
개방성	29(51.7)	34(22.0)	42(40.5)	4.42
학구열	33(63.6)	32(40.6)	40(50.0)	3.50
지혜	34(50.0)	35(57.1)	36(47.2)	0.74
인애	34(61.8)	36(47.2)	35(45.7)	2.17
사랑	35(54.3)	23(52.2)	47(48.9)	0.24
이타성	28(57.1)	36(44.4)	41(53.7)	1.15
정서지능	28(57.1)	32(46.9)	45(51.1)	0.63
용기	33(54.5)	34(52.9)	38(47.4)	0.41
용감성	31(51.6)	32(53.1)	42(50.0)	0.07
진실성	30(50.0)	36(63.9)	39(41.0)	3.95
끈기	33(51.1)	32(59.4)	40(45.0)	1.47
활력	34(55.9)	30(60.0)	41(41.5)	2.78
절제	34(44.1)	35(57.1)	36(52.8)	1.21
겸손	34(38.2)	27(63.0)	44(54.5)	3.98
신중성	30(50.0)	34(50.0)	41(53.7)	0.13
용서	27(48.1)	41(58.3)	37(45.9)	1.39
자기조절	35(45.7)	33(48.5)	37(39.5)	1.53
정의	32(50.0)	38(55.3)	35(48.6)	0.36
공정성	31(51.6)	38(52.6)	36(50.0)	0.05
시민의식	35(40.0)	29(58.6)	41(56.1)	2.79
리더십	29(51.7)	38(63.2)	38(39.5)	4.27
초월	33(54.5)	36(58.3)	36(41.7)	2.19
감사	32(53.1)	38(60.5)	35(40.0)	3.13
낙관성	35(60.0)	30(53.3)	40(42.5)	2.35
심미안	34(55.9)	34(55.9)	37(43.2)	1.53
유머감각	35(51.4)	32(43.8)	38(57.9)	1.39
영성	34(50.0)	36(58.3)	35(45.7)	1.17

성격강점 집단에서 강/중/약 강점집단 간에 성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핵심덕목 및 하위강점 수준에 따른 충동성

핵심덕목과 충동성

각 핵심덕목 총점을 기준으로 약, 중, 강 집
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충동성 점수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지혜 및 지식, 인애, 용기,
절제, 정의 덕목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
량분석과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등분산 검증
결과, 모든 덕목에서 약, 중, 강 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혜 및 지식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F_{(2,102)}=4.24, p<.05$), 덕목

이 강한 집단($M=27.89, SD=4.78$)보다 덕목이
약한 집단($M=31.31, SD=4.73$)이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에서도 유의한 집
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F_{(2,102)}=7.19, p<.01$),
덕목이 강한 집단($M=27.32, SD=5.26$)보다 덕
목이 중간인 집단($M=31.12, SD=4.21$)과 약한
집단($M=31.15, SD=5.30$)이 더 높은 충동성을
보였다. 절제($F_{(2,102)}=3.48, p<.05$)와 정의 핵심
덕목($F_{(2,102)}=5.53, p<.01$)에서도 집단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덕목이 강한
집단(절제: $M=28.53, SD=4.94$, 정의: $M=27.89,$
 $SD=4.95$)보다 덕목이 약한 집단(절제: $M=$
 $31.62, SD=5.69$, 정의: $M=31.97, SD=5.52$)이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애($F_{(2,102)}=2.49, ns$)와 초월($F_{(2,102)}=3.36, ns$)
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

표 3. 핵심덕목 집단별 충동성 변량분석 결과

변인		약	중	강	F	사후검증
지혜 및 지식	M	31.31	30.18	27.89	4.24*	약 > 강
	SD	4.73	5.76	4.78		
인애	M	30.24	30.83	28.17	2.49	
	SD	4.81	5.76	4.85		
용기	M	31.15	31.12	27.32	7.19**	약, 중 > 강
	SD	5.30	4.21	5.26		
절제	M	31.62	29.20	28.53	3.48*	약 > 강
	SD	5.69	4.71	4.94		
정의	M	31.97	29.61	27.89	5.53**	약 > 강
	SD	5.52	4.66	4.95		
초월	M	30.45	30.89	27.97	3.36	
	SD	4.89	5.02	5.44		

* $p<.05$, ** $p<.01$

하위 성격강점별 충동성

표 3과 같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지닌 일반인이 지혜 및 지식, 용기, 절제, 정의 핵심덕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충동성점수 차이를 보였으므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덕목의 하위강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지혜 및 지식 덕목의 하위강점 수준에 따른 충동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표 4), 개방성($F_{(2,102)}=9.58, p<.001$), 지혜($F_{(2,102)}=5.79, p<.01$) 성격강점에서 강점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개방성 강점이 강한 집단($M=27.24, SD=5.09$)보다 중간 집단($M=31.06, SD=3.75$)과 약한 집단($M=31.86, SD=5.62$)이 유의하게 높은 충동성을 나타냈다. 지혜의 경우, 강점이 약하거나 중간 수준인 집단(약: $M=31.26, SD=4.65$, 중: $M=30.63, SD=4.34$)보다 강한 집단($M=27.47, SD=5.90$)에서 더 낮은 충동성을 나타냈다. 창의성($F_{(2,102)}=0.23, ns$), 호기심($F_{(2,102)}=1.81, ns$)

과 학구열 하위강점($F_{(2,102)}=0.68, ns$)에서는 강점수준에 따른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핵심덕목 중 용기 하위강점의 경우, 강점수준에 따른 충동성은 용감성($F_{(2,102)}=9.78, p<.001$), 끈기($F=8.02, p<.01$), 진실성($F_{(2,102)}=4.12, p<.05$), 활력($F_{(2,102)}=4.46, p<.05$)에서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진실성 하위강점들은 강점수준이 낮은 집단($M=31.17, SD=5.11$)이 강점수준이 높은 집단($M=27.92, SD=5.8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충동성을 보였고, 용감성과 끈기, 활력의 경우 낮거나 중간 수준의 강점을 가진 집단이 강한 수준의 강점을 가진 집단에 비해 높은 충동성을 보였다(표 5).

절제의 하위강점 중 겸손($F_{(2,102)}=3.67, p<.05$)과 신중성($F_{(2,102)}=8.19, p<.01$)에서만 강점수준에 따른 충동성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겸손은 강점수준이 중간인 집단($M=31.56, SD=5.00$)이 강한 집단($M=28.27, SD=4.77$)에 비해

표 4. 지혜 및 지식 하위강점 집단별 충동성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약	중	강	F	사후검증
창의성	M	29.40	30.23	29.60	0.23	
	SD	5.83	3.41	6.13		
호기심	M	31.03	29.82	28.75	1.81	
	SD	5.02	5.14	5.38		
개방성	M	31.86	31.06	27.24	9.58***	약, 중 > 강
	SD	5.62	3.75	5.09		
학구열	M	30.42	29.97	29.03	0.68	
	SD	4.87	5.90	5.03		
지혜	M	31.26	30.63	27.47	5.79**	약, 중 > 강
	SD	4.65	4.34	5.90		

** $p<.01$, *** $p<.001$

표 5. 용기 하위강점 집단별 충동성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약	중	강	F	사후검증
용감성	M	31.32	31.59	27.19	9.78***	약, 중 > 강
	SD	5.38	3.80	5.14		
끈기	M	31.21	31.31	27.30	8.02**	약, 중 > 강
	SD	5.34	3.85	5.32		
진실성	M	31.17	30.56	27.92	4.12*	약 > 강
	SD	5.11	4.09	5.86		
활력	M	30.94	30.93	27.90	4.46*	약, 중 > 강
	SD	5.41	4.18	5.3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절제 하위강점 집단별 충동성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약	중	강	F	사후검증
용서	M	29.78	29.27	30.27	0.67	
	SD	4.99	5.00	5.76		
겸손	M	30.24	31.56	28.27	3.67*	중 > 강
	SD	5.62	5.00	4.77		
신중성	M	32.40	29.97	27.63	8.19**	약 > 강
	SD	5.28	3.90	5.38		
자기조절	M	31.20	29.79	28.35	2.74	
	SD	5.52	4.78	5.13		

* $p < .05$, ** $p < .01$

높은 충동성을 보였고, 신중성은 강점수준이 낮은 집단($M=32.40$, $SD=5.28$)이 강점수준이 높은 집단($M=27.63$, $SD=5.38$)에 비해 높은 충동성을 보였다(표 6).

핵심덕목 중 정의의 하위강점 수준별 충동성을 비교한 결과(표 7), 시민의식 하위강점($F_{(2,102)}=4.05$, $p < .01$)과 공정성 하위강점($F_{(2,102)}=3.94$, $p < .05$), 리더십 하위강점($F_{(2,102)}$

$=6.19$,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의식과 공정성은 강점수준이 높은 집단(시민의식: $M=28.27$, $SD=4.66$, 공정성: $M=28.03$, $SD=4.93$)보다 강점수준이 낮은 집단(시민의식: $M=31.60$, $SD=4.41$, 공정성: $M=31.52$, $SD=5.84$)에서 높은 충동성을, 리더십의 경우 강점수준이 높은 집단($M=27.53$, $SD=5.53$)보다 강점수준이 중간

표 7. 정의 하위강점 집단별 충동성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약	중	강	F	사후검증
시민의식	M	31.60	29.62	28.27	4.05**	약 > 강
	SD	4.41	6.33	4.66		
공정성	M	31.52	29.95	28.03	3.94*	약 > 강
	SD	5.84	4.60	4.93		
리더십	M	30.48	31.42	27.53	6.19**	중 > 강
	SD	5.12	4.30	5.53		

* $p < .05$, ** $p < .01$

인 집단($M=31.42$, $SD=4.30$)에서 높은 충동성을 나타냈다.

핵심덕목 및 하위강점과 충동성

핵심덕목과 충동성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핵심덕목과 하위강점을 강/중/약 수준으로 나누어 집단 간 충동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혜 및 지식, 용기, 절제, 정의 핵심덕목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여러 핵심덕목에서 충

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덕목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8), 지혜 및 지식($r=-.30$, $p < .01$), 용기($r=-.41$, $p < .001$), 절제($r=-.25$, $p < .05$), 정의($r=-.36$, $p < .001$)만이 충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상관하였다.

지혜 및 지식, 용기, 절제, 정의 핵심덕목과 충동성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므로 네 가지 핵심덕목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네 가지 핵심

표 8. 핵심덕목과 충동성 상관분석 결과

	지혜 및 지식	인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충동성
지혜 및 지식	1						
인애	.68***	1					
용기	.66***	.66***	1				
절제	.56***	.55***	.71***	1			
정의	.61***	.65***	.78***	.76***	1		
초월	.75***	.78***	.62***	.53***	.57***	1	
충동성	-.30**	-.18	-.41***	-.25*	-.36***	-.14	1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충동성에 대한 핵심덕목 중다회귀분석

변인	충동성			
	β	t	R^2	F
지혜 및 지식	-.06	-.48	.18	5.44***
용기	-.34	-2.14*		
절제	.15	1.04		
정의	-.17	-1.01		

* $p < .05$, *** $p < .001$

표 10. 충동성에 대한 용기 하위강점 중다회귀분석

변인	충동성			
	β	t	R^2	F
용감성	-.16	-1.12	.19	5.78***
진실성	.07	.60		
끈기	-.27	-1.86		
활력	-.08	-.56		

*** $p < .001$

덕목은 충동성을 17.9% 설명하였고, 용기 핵심 덕목이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 p < .05$). 이는 용기 핵심 덕목이 낮을수록 충동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강점과 충동성

용기 핵심덕목의 하위강점들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을 설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강점을 알아보기 위해 용기 하위강점과 충동성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감성($r = -.38, p < .001$), 끈기($r = -.41, p < .001$), 진실성($r = -.22, p < .05$), 활력($r = -.36, p < .001$) 모두 충동성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상관하였다. 또한, 네 가지 하위강점은 충동성을 18.8% 설명하였고, 끈기 하위강점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통계적인 경향성을 보였다($\beta = -.27, m$). 이러한 결과는 끈기강점이 낮아질수록 충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논 의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사람이 모두 범죄에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충동성과 결합했을 때, 더 위협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선행 연

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치료개입에 비해 효과가 작고 성격적 특질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반사회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행동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경우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성은 낮을 때, 6가지 덕목 중에서 지혜 및 지식 덕목, 용기 덕목, 절제 덕목, 그리고 정의 덕목의 4가지 덕목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혜 및 지식 덕목이 반사회성 성향자의 낮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수형자들의 재범과 관련된 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재범 경향성이 증대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위강점의 지식 강점이 유의하게 나온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판단된다(남상철, 박상석, 2011). 이 덕목의 하위강점을 살펴보면 개방성만이 낮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개방성은 인지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방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해 쟁점에 대해 자발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권석만, 2011; Kuhn, 1991). 개방성이란 문제 상황에서 주변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향과는 반대되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고,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어떤 주제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야 하는 개방성의 특징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통제외 어려움으로 특징지어지는 충동성과는 상반된

다. 종합하면 지혜 및 지식 덕목은 지적인 학습, 문제해결능력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두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 업무나 과업에도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충동성 조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용기 덕목이 반사회성 성향자의 낮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었다. 하위강점으로는 용감성, 끈기, 활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실성은 경향성을 보였다. 충동성은 생각 없이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내적 충동에 대해 갑작스럽게 행동하려는 성향으로(이철수, 2013)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용기나 용감성과는 다르다(권석만, 2011). 용기 안에는 끈기와 활력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충동성은 이러한 강점과 양립할 수 없다. 다만 진실성은 개념상 충동성보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과 오히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절제 덕목의 하위강점 중에서는 신중성과 겸손이 반사회성 성향자의 낮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중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충동적이며 반사회적 행동, 비행, 사회적 적응 실패, 범죄행동과 같은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ooper et al., 2003). 특히 충동성은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위험한 행동,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섭식 장애, 신체 손상 행위 등을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Dawe & Loston, 2004; Zuckerman & Kuhlman, 2000).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강점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자기조절결여가 충동통제장애, 알코올 의존, 도박중독, 게임중독 등 부적응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선행연구(권석만, 2011)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회성 성향자가 지닌 자기조절 강점이 일반인의 자기조절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반사회성 성향자의 강점수준에 따른 충동성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겸손 하위강점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겸허한 태도를 의미하는데,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편이며 자기존중감의 위협을 막기 위해 무모하게 위협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권석만, 2011). 이는 무모하게 행동하는 충동성과는 상반되는 특성이므로 자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그 정도가 강하지 않다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Heine et al., 2001).

네 번째, 정의 덕목의 하위강점 중에서는 시민의식, 리더십, 그리고 공정성 강점이 반사회성 성향자의 낮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정의 덕목을 효과적인 집단 활동에 기여하는 사회적 강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충동성과 공존할 수 없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더십이 하나의 공유된 목표를 향해 집단의 활동을 집중시키는 개인적 행동이고(Hemphill & Coons, 1957), 집단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며 집단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시민의식이라고 한다면(Peterson & Seligman, 2004) 집단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강점을 함양하는 것이 충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인한 치우

침이 없는 공정성을 함양하는 것 또한 흥분하면 진정하기 어렵고 쉽게 화를 내는 정서적 통제에 결함이 있는 충동성을 약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에 따라 4가지 덕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네 덕목들이 서로를 통제했을 때 어떤 덕목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용기 덕목이 가장 낮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강점 중에서도 끈기만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란 목표추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외부적, 내면적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강인함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난이나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집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강력하게 분발하고 맹렬하게 추진하는 능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인내하고 유혹을 견뎌내야 하는 수동적인 성향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권석만, 2011). 능동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오히려 충동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진정한 용기는 근면성과 인내력을 포함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사람의 외현화 행동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상학적, 자율적 개입보다는 인성, 도덕성 교육이나 행동주의에 입각한 개입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교정 시설이다. 과거 교정 시설의 교육은 정신교육이라고 하여 심신단련과 단체

적응훈련, 교육 위주의 정신수련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06년을 전후로 해서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일부가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정신교육이 효과가 미비하여 새롭게 인성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교육을 재편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특별활동, 심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정우석, 2011). 기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많으나 주로 분노조절 훈련 위주의 인지-행동 치료가 대부분이고(이철호, 이민규, 2005; 유철민, 2009) 충동성에 관련된 연구 역시 주로 인지 치료 개입법을 사용하였다(최낙균, 2007).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높지만, 충동성이 낮은 경우 어떠한 성격적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여 강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 혹은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을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수형자 집단에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덕목과 강점을 통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지닌 재소자의 교정프로그램을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 장면에서 유용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과 성격 강점의 역할 외에도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나 신경증이나 정신증과 같은 다른 임상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성격장애는 공병이 많은 만큼 여러 변인의 상호작용을 받

영하는 개입방법과 치료방법 개발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응답의 신뢰도 문제와 같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의 제한점들이 본 연구에서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험 연구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유영진, 임영진, 김지영 (2010). 성격강점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 김종수 (2005). 성격차원 하위요인들과 범죄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1(1), 85-99.
- 김지영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및 덕성과 성격장애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1), 75-99.
- 남상철, 박상석 (2011).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소식, 50, 115-139.
- 노은정, 황순택, 구형모, 이숙희 (2011). 성격장애 진단검사 의존성과 회피성 소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 임상, 27(1), 311-332
- 박소은 (2009). 폭력범죄 청소년과 정신장애 성향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3), 3-42.

- 배정이 (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15(3), 308-317.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임상*, 25(1), 273-288.
- 서진환, 이수정 (2000). 교정기관 재소자들의 정신건강문제. *한국사회복지학*, 43, 131-156.
- 신행우 (1999). 성격 특성이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오수성 (2007).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미래.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14.
- 유철민 (2009). 분노조절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45, 331-359.
- 이규환 (2009). 의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마음 건강 X파일; 불안한 사회, 갈등하는 가족에 도사리는 마음병 정복 원리. *왕의서재*, 201-207.
- 이규휘, 이봉건 (2012). 우울-반사회적 성향 재소자의 기질 및 정서특성과 자살생각. *한국교정학회*, 55, 103-126.
- 이상현 (2005).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수정, 서진화, 이윤희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 건강문제 실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43-62.
- 이철수 (2013).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헤민북스.
- 이철호, 이민규 (2005).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41.
- 이현수 (1992). *충동성 검사 실시 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71-92.
- 정대기 (2007).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상책임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우석 (2011). 교정시설 내 인성교육 수용과정 고찰: 수형자 정신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서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인격교육학회: 인격교육*, 5(1), 109-135.
- 조은경 (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0(0), 125-178.
- 최낙균 (2007). REBT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공격성, 충동성 및 희망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300-322.
- 하우동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한국광고총연합회 (2014). 월간 베스트 광고; 12월, 동서식품, 핫초코 미떼-[부녀]편. http://www.ad.co.kr/best/current/2014_12.hjsp. 에서 2015. 1. 16일 자료 얻음.
- Barratt, E. S.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sychological Medicine*, 5, 55-61.
- Coid, J., Yand, M., & Roberts, A. (2006). Violence and psychiatric morbidity in the national household population of Britain: public health implic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12-19.
- Cordella, P., & Siegel, L. (1996). *Reading in Contemporary Criminological Theory*. pp. 117,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 Correia, C. J., Benson, T. A., & Carey, K. B. (2005). Decreased substance use following

- increases in alternative behavio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ddictive Behaviors*, 30(1), 19-27.
- Cooper, M. L., Wood, P. K., Orcutt, H. K., & Albino, A. (2003). Personality and predisposition to engage in risky or problem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90-410.
- Dawe, S., & Loxton, N. J. (2004). The role of Impulsivity in the development of substance abuse and eating disorder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8, 343-351.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Ed.). *A Model for Personality*. (pp.246-276) Berlin: Springer-Verlag.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et al.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 and me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mphill, J. K., & Coons, A. E. (1957). Development and 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In R. M. Stogdill & A. E. Coons (Eds.), *Leader Behavior: Its Description and Measurement*. Columbus, OH: Bureau of Business Research of Ohio State University.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The Guilford Press.
- Kuhn, D. (1991). *The skills of argu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ubomirsky, S. (2008). *The b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Penguin Press.
- Park, N., & Peterson, C. (2009). Achieving and sustaining a good life. *Perspectives in Psychological Science*, 4, 422-428.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margia, L. A., Saewyc, R. N., & Elliott. B. A. (2006). Foregone mental health care and self-reported access barriers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2(1), 17-24.
- Seligman, M. E. P.,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11, 774-788.
- Seligman, M. E. P., Reivich, K., Jaycox, L., & Gillham, J.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 Zuckerman, M., & Kuhlman, D. M. (2000). Personality and risk taking: Common biosoci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68(6), 999-1029.
- 1 차원고접수 : 2014. 06. 18.
심사통과접수 : 2014. 07. 04.
최종원고접수 : 2014. 07. 09.

The relation between Impulsivity and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mong Antisocial personality disposition

Yeun-Joo Hu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Yoori Se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wangbai Park

Min-Kyu Rh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impulsiveness, a history of crime and legal problem. Impulsiveness is also connected with law-breaking. In view of Positive psychology, the reason for the revelation of psychiatric disorder is considered as the absence of psychological strength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impulsiveness and character traits among antisocial personality disposition from not prisoner, to figure out maladaptive features of personality disposition from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CSV) aspect and to draw an improvement of effect personality educational program for prisoner and not prisoner. In this study, we selected 105 people who was diagnosed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position tendency among 430 university students, measured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nd Impulsivity and analyzed categorized 3groups depending o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strength, regular and weakness. We found that the people who have weak traits in four classes(wisdom and knowledge, Courage, Temperance, and Justice) showed more impulsiv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application as remediation for prisoner 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ere discussed.

Key words : law-breaking, antisocial personality, impulsivity,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CSV), positive psychology